

## 보름 앞둔 광주비엔날레 시민들이 만들고 채운다

### 작품 제작 참여 붐...입장권 예매는 저조

광주비엔날레가 '시민 참여'의 문호를 넓히고 있다. 작가들의 작품 구상 단계부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가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작품을 제작하는 형식을 강화하면서다.

참여작가와 일부 문화산업 참여자들만을 위한, 지역민과의 소통·참여가 미흡한 '그들만의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예전과 전혀 다른 전시 방향으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려는 긍정적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입장권 판매는 저조해 적극적인 판촉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참여 시민 1000명 넘어=광주비엔날레재단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1000

명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학생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작품이 완성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크레이크 윌시와 히로미 탕고의 '홈-광주'(Home-Gwangju) 작품 제작에는 인터넷과 바느질 작업에만 170여명이 참여했고 필리핀 출신 작가 포코롱 아나밍의 작품에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83명이 등장한다.

이규철 교수의 '그들이 떠난 곳에서' 라는 작품을 완성하려면 4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야 가능하고 설치작가인 서도호씨가 개인시장을 소재로 삼아 추진중인 '탁본 프로젝트'도 작가가 맡은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채워 넣어야 온전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호텔들, '비엔날레 특수'=비엔날레 개막(9월 6일)을 앞두고 9월 5~7일 광주지역 호텔들의 객실 예약이 대부분 꽂혔다.

21일 현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총객실 120개)은 9월 5~7일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나 더 이상 방을 잡을 수 없다. 또 홀리데이인호텔(총객실 205개)도 6~7일 모든 객실이 동이 난 상태다. 신양파크호텔 등도 7일의 경우 객실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다.

이 기간 국제미술장터인 '2012 아트광주'(9월 5일~9일)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객실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매 입장권 판매는 저조=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입장권 판매는 저조해 개막을 보름 가량 남겨놓고 있음에도 분위기가 뜨겁지 않다. <2면에 계속>



### 광주의 올림픽 영웅들 돌아왔다

제30회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선전해 광주출신 선수 환영행사가 21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를 마친 후 기성용·기보배·양학선·최은숙 선수가 인파를 뚫고 행사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14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박준영 민주 대선경선 후보 사퇴

민주통합당 박준영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백의 종군하겠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 지사의 특정 후보 지지 등 추후 행보는 경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염속한 명령과 당원 동지의 간절한 여망을 실현하고자 경선에 참여했으나 이 순간부터 경선 후보로서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현역 전남지사로서 도정 장기 공백에 대한 부담 등도 중도 사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박 후보는 "민의를 대변하자는 경선이 조직 및 동원선거를 불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깨끗한,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컷-오프(예비 경선) 통과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긴 했지만 중도 사퇴로 인해 대선 도전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면서 정치적 박준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 후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모두가 훌륭한 분이다. 좋은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길 기대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 9월 11일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 알림

## 행복한 미래 설계 하세요

### 한국FP협회 재무설계 강연·상담회

광주일보사와 재무설계 전문가 단체인 한국FP협회는 오는 9월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재무설계 강연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재무설계를 통한 행복한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재무설계 전문가가 자산관리 등 재무와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또 재무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및 AFPK(한국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무설계사들이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줍니다.

은퇴준비, 자녀 교육, 내집 마련, 부채 상환, 상속·세금 등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9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 문의: 한국FP협회 02-3276-7653
- 주최: 광주일보사·한국FP협회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 나이트클럽서 개막 파티

#### 광주비엔날레 40국 작가 등 초청

'춤 음악은 기본, 작가와의 즉석 만남까지'

세계 최고의 국제미술전 중 하나인 베니스 비엔날레는 개막식이 끝나면 도심 곳곳에서 세계 유명 갤러리들이 후원하는 축하 파티가 열린다. 미술계의 VIP들이 총 집결하는 만큼 사교장 역할을 하는 파티를 열고 소속 작가를 소개·홍보하려는 세계 갤러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광주비엔날레도 비슷하다. 행사 때마다 수십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이며 국내 및 아시아 미술계의 간판으로 위상을 확고히 수립한 대표적 국제 미술축제답게 다음달 6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예정된 공식 개막식 뒤 국내외 갤러리들이 주최하는 파티가 열린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40개국 92명(팀)의 국내외 참여작가를 비롯, 전시 관계자, 컬렉터, 미술 관련 인사 등이 초청된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도심 나이트 클럽 2곳에서 여는 방안에 검토되고 있다. 외국 작가들이 많은 만큼 외국인 DJ도 수도권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사 때마다 개막식 파티는 열렸지만 지난 2008년과 2010년에는 이례적으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유나이트클럽에서 개최해 외국인 참가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08·2010년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파티가 열렸던 광주시 화정동 자유나이트클럽. 한 밤이면 천정이 열려 장관을 이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 입 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 규 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라카를,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라카를,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 특이사항 | 감평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